

# 민주 총선후보 경력 '이재명' 표기 불허·현역 페널티 강화

### 총선거획단 3차 회의...비주류 공천 불이익 우려 불식·공정성 확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경선 득표 감산 비율 20→30%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경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대해선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총선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총선거획단 3차 비공개 회의 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정보 공개와 홍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 후보 대표 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해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추후 확정될 공천 심사사 경선의 대표 경력 역시 예비 후보자 대표 경력 기준에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령 이재명 당 대표 특보의 경우 '민주당 당 대표 특보'라고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총선거획단의 설명이다.

그간 당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등 비주류의 공천 불이익 우려를 불식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 이름 사용 금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 사용은 과거에도 불허했다"며 "최근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외에서 상당히 있어 입장을 정리해 이번

에도 준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총선거획단은 선거 운동을 위한 명함에는 정치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명함에는 이름을 써도 된다고 한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항목에서 하위 평가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하지만, 하위 10% 이하엔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하고 하위 10~20%에는 지금처럼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며 "현재 하위 20%가 대상인 감산 범위는 유지하나 감산 비율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는 지난 9월 활동을 마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김은경 혁신위는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 감산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김은경 혁신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인데 대한 질문에 "원점에서 새로 논의했다고 보면 된다"며 "혁신안에 제시된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총선거획단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향후 당 최고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가운데)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양평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양평주만·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다음달부터 혁신의 시간...공천 앞 인적쇄신”

### 홍익표 원내대표, 신문방송 편집인 포럼...“민생법 처리 제1 과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일 "빠르면 12월 중하순, 늦으면 내년 1월 초순부터 민주당 혁신의 시간이 온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편집인 포럼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까지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제1의 과제"라고 밝혔다.

또 "우리 당 혁신의 시간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천이 마무리되면 빨라야 내년 2월이 그 전에 인적 쇄신 등이 마무리될 시점"이라며 "정치개혁의 시간이 그렇게 늦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어필하는 시간은 그때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의 혁신은 통합

이라며 "거대한 정부-여당의 큰 힘에 대항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과 함께 해서 힘을 모으고 어떤 분을 선거 전면에 내세울지는 전략과 구도에서 나온다"며 "그 과정에서 헌신하거나 희생해야 할 분들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내 통합과 이후 좀 더 열린 자세로 외부의 좋은 분을 영입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당 대표 역할이 크겠지만 저도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며 "특정인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저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총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 "선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여러 변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 체제로 간다는 기본 원칙하에서 다양한 이 대표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판단은 고스란히 이 대표 몫"이라고 밝혔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대표의 합지 출마론에 대해선 "너무 앞서간 것"이라며 "큰 틀의 전략과 구도가 정해진 다음에 생각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안'에 대해선 "방향이 잘못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가 아니라 반대로가 있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수용될지 모르겠다"며 "간접 영입은 이철규 위원장이 맡았는데 그것이 현 대표의 혁신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과거 모든 인재위 책임은 당 대표가 했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차관 불참에 멈춘 예산 심사

### 전병극 문체1차관, 해외로...여야 "국회 무시" 비판

21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회의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의 불참으로 멈춰 섰다.

소위는 이날 문체부 소관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전 차관은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 등을 위해 솔로몬제도를 방문해 회의에 불참했다.

문체부는 전 차관의 외국 출장 사실을 소위 회의 직전에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야 간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위 위원들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 차관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삼석 위원장은 "문체부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체부 예산 심사를 꼭 진행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예산 편성 이유를 국회에 와서 소상히 설득할 책무가 있는

만큼 정부 측은 예결위 기간에는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대기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아무 얘기 없이 차관이 출장 간 상태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것은 국회의 심사 권능을 부정하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솔로몬 제도는 이미 부산 지지를 선언했다는 게 보도에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갔다는 건가"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예산 심사를 받고, 누가 (문체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이상 (문체부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심사 여부를) 양당 간사 간 협의에 맡겨달라"고 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서 위원장은 "납득할 만한 사유를 설명할 때까지 문체부 예산을 심사할 생각이 없지만,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니 양당 간사와 의원들의 의견을 들겠다"며 회의가 열린 지 1시간도 안 돼 정회를 선포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구성

여야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용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특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에는 국민의힘 정점식(간사)·김형동·

유상범·전주혜 의원, 민주당 진성준(간사)·정성호·서영교·오기형·이정문·홍정민·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내정됐다. 아직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서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기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증양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의견 청취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이 단계를 통해 의견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2일  
여수시장

-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대상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지역의 명칭(상징) 및 주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대상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지역의 명칭(상징) 및 주소
도시계획시설(도로) : 상행로 등용마을도시계획도로 개설	여수시 상행로 1275-1번지 일원	· 면적 및 규모 : 1,183㎡ · 규모 : 1,170㎡(6m)	여수시정 / 여수시 시장 1
- 공방장소, 공방기간
 

사업명	명칭(상징)	명방기간
상행로 등용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수시 도로과	2023. 11. 22. ~ 2023. 12. 04(14일간)
-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11. 22. ~ 2023. 12. 6(14일간)
  - 제출방법: 명방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토지 및 자장물로서: 여수시청 도로과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군산시 수송동 7층(상업지구)매매

840㎡ 바닥628㎡ 대형건물  
의료기관4개입주 메디컬빌딩

월 4천만원, 수익률 6.3%  
은행 36억5천.보10억

매매가  
86억 (현금39억6천만원)

010-3646-8700(직거래)

---

### 자본금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3년 11월 주주총회에서 결산금 보전을 통한 재무개선을 위하여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10주를 동일 액면금액의 보통주식 3주로 무상병합 하여 자본금의 총액 금1,050,000,000원(발행주식총수 210,000주)에서 금315,000,000원(발행주식총수 63,000주)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는바,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가 게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위 같은 기간 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2일  
주식회사 코마스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로 14-135(연산동)  
대표이사 김윤재

kwangju.co.kr  
광주일보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